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위 좌초 위기

주도적 역할 군의회 탈퇴... 조사단 구성 등 타격 우려

일부선 “주민 대표성 포기 아니냐” 비판도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주도해 온 영광군의회가 탈퇴하기로 하면서 대책위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주민 대표성과 공신력을 담보해 왔던 의회가 빠질 경우 대책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14일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대책위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탈퇴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에는 군부연회와 이장단 대표 등 민간 단체와 군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군의회측에서는 나승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봉환 부의장과 김양모 의원이도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5일 납품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1주일만에 구성됐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상을 벌이고 항의방문을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최근 가동된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부품 교체로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 발생한 3·4호기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을 앞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혀 대책위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5·6호기 재가동까지 활동

한 만큼 의정업무 본연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3·4호기부터는 민간이 주도해 대책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회 내 원자력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김봉환 부의장이 원전감시센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후방에서 대책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대책위 활동 중단을 놓고 일부 단체의 과도한 비판과 요구가 의원들의 피로도와 회의감을 가중시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책위 내부에서는 의회가 활동을 중단할 경우 대표성과 공신력이 추락할 우려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의회의 대책위 활동 중단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스스로 포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 김관용 기획위원장은 “의회가 탈퇴할 경우 3·4호기 조사단 구성 등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가 활동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나승만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대책위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의 입장이 달라 난처하다”며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오리 쫓는 허수아비

풍선을 다는 등 오리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원도 고밀도의 한 매생이 양식어민이 어선에 설치한 허수아비, 어민들은 양식장을 초토화시키는 오리떼를 쫓아내기 위해 총소리를 내는 기계를 설치하고

화순, 농기계 50% 지원

화순군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화순군은 14일 “모두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기계 구입비의 최대 50%(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화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70만원 이상의 중·소형 농기계 및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관련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김일태 영암군수

“기찬랜드에 가야금 테마공원”



월출산 사도 재추진 고려

달마지쌀 장려금 향상

왕인축제 등 준비 철저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계산년 새해에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의 정착, 생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군민과 함께 앞서는 지역개발, 무한감동 복지·교육 실현 등 군정 4대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14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 강화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관광산업 상품화 ▲희망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만족 행정 구현 ▲생활권 중심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6대 역점과제로 꼽았다. 우선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선진기술 보급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 쌀 선정으로 대한민국 명품 쌀 반열에 오른 달마지쌀 골드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최대 6500ha까지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아열대 과수 단지를 조성하고 2014년까지 30억이 투입될 대भाग 고부가가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 주민 소득 향상과 연계시키고 문화·역사·생활

하고 있는 1억5천이 왕인국화축제,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등 관광이벤트도 철저히 준비해 생각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에서 부결된 월출산 국립공원 사도 설치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해 재추진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영암읍 일원에 식품산업이 집적되는 영암농공단지와 대불산화용합지구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올해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군민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군민과의 대화 및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수시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도, 명예 읍면장 제도 운영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김 군수의 복안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우수군 선정, 복지분야 평가 최우수군 선정 등 15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7만 군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희망찬 영암을 만드는데 모든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문병희기자 moon@

‘돈 먹는’ 해남 땅끝전망대

외벽 마감재 태풍 불면 떨어져 매년 뺨질 처방

땅끝 해남의 상징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땅끝전망대가 잦은 파손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준공 당시부터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이 땅끝 전망대에 해남군은 매년 수천만원의 보수비를 들여 뺨질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3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9층 높이 39.5m 규모로 완공된 땅끝 전망대의 외벽마감재인 티타늄 아연판이 수시로 탈락되고 있다. 2002년 태풍 투사를 시작으로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태풍 나리 등 태풍과 강풍때마다 외벽 마감재인 티타늄 아연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다.

군은 안전진단 등을 위한 용역비를 투입하고 피해 발생시 마다 5000만~8000만원의 보수비를 들여 보안을 해왔지만 피해는 되풀이 되고 있다. 또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수입 마감재여서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도 떨어져 나간 외벽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망대 외벽 마감

재인 티타늄 아연판은 설계 당시 강풍에도 견딜수 있는 마감재로 설치됐지만 번번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마감재를 합판이 아닌 강판에 직접 고정 시키는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남군의회 한 의원은 “전망대가 위치한 지역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부는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가 이뤄진 것 같다”며 “전망대 외벽에 대한 다른 시공법등을 찾아 불필요한 예산이 매년 집행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 땅끝 전망대에는 연간 41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담양소방서 작년 구조활동 50% 증가

지난해 담양지역 내에서의 구조·구급 출동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소방서는 14일 “지난해 모두 1만1733건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으며 구조·구급대가 하루 평균 32차례 현장에 나가 인명 구조 2945건, 응급환자 이송 6217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조활동은 모두 2945건으로 전년 대비 50.9%가 증가했다. 구조 신고 가운데 벌집 제거 활동(6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통사고(8.9%), 동물구조(6.

3%), 화재 인명구조(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송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이 3374명으로 가장 많아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른 질환과 사고 부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벌집 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형 구조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여가활동이 증가한 결과 더불어 교통·산악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나주 천연염색재단 상임이사 공개 채용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임성훈 나주시장)은 오는 23일까지 재단 상임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30일 결정되며, 다음달 1일부터 3년 임기로 근무하게 된다. 임용자격요건은 천연염색 관련 분야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해당 분야 경력자,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된 경력자, 1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tv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헬로셋

☎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